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9. 14.(목) 06:00 < 9.14.(목) 석간 > 배포 2023. 9. 13.(수)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 연휴 기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업계 협조 당부
- 연휴 대비 2주간(9. 14.~27.) 주유소 현장 특별점검 시행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9. 14.(목) 오전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주유소 현장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OPEC+)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최근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모니터링)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 유류세 인하 폭(원/L, '23. 1. 1.~) : (휘발유) 820 → 615(△25%), (경유) 581 → 369(△37%) 등

아울러, 연휴 기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주(9. 14.~27.)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들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업계의 유가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민족 대이동 추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 해달라고 언급하며,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5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